

2010년 주님의교회 항존직선거 결과보고

*일시및 장소 : 2010. 9. 5 (08:30~15:00) / 9. 12 (08:30~15:00) - 정신여중 본관1층

*총투표지수 : 1,198명 (1차) / 1,101명 (2차)

*유효투표수 :

-장 로 : <1차> 1,173표 (97.9%) <2차> 1,085표 (98.6%)

-권 사 : <1차> 1,151표 (96.1%) <2차> 1,053표 (95.7%)

-안수집사 : <1차> 1,146표 (95.7%) <2차> 1,060표 (96.3%)

장로



김성구 <1명>

권사

1차



오미혜



유석희



김종란



박주희



김혜중



김동순

2차



홍기현



장근희



최귀선



김순희



조성희



곽인평



정승아



우금순



임미경



최인실



왕명숙



손경숙



이연숙



김현희



성향순

<21명>

안수집사

1차



강석인



하영중



박헌욱



박동수



이재덕



김순중



김관호



김익훈

2차



김기창



윤희육



임익수



하태원



나영일



노환욱



노대홍



임근원



이성균



김달원



김복수



김이권



홍의운



이상록

<22명>

지난 여름의 더위가 대단했던 터라 선선한 가을바람이 너무도 고맙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번 함글함글에서는 음반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정말 많은 씨디를 들었습니다. 가을에 어울릴만한 음반이면 더욱 좋겠 다 싶어 기도하며, 주위분들의 기도의 도움까지 받으며 고르게 된 것은 Soma Trio의 1집 "Dear God"와 2집 "I love you" 입니다. 발매된 지 각각 10년, 6년이 되었기에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된 음반들의 은혜를 다시 나눠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예일대 음대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손인경(바이올린), 배일환(첼로), 이만정(피아노)에 의해 결성된 소마트리오는 연주자 세 분 모두 현재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입니다. 각 개인의 연주기량이 탁월하면 서도, 한사람의 연주인 듯 조화가 돋보이는 두 음반에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죄짐말 은 우리 구주와 같은 찬송가들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같은 복음성가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앨범을 기쁠 때 들으면 그 기쁨이 더욱 커지고, 우울하고 슬플 때 들으면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듯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음반을 통해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소 마트리오의 세 연주자들이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은혜로운 찬양연주로 하나님께 감사 의 제사를 드린 까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음 반은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큰 힘과 위로로 저를 일으켜주고 세워준 고마운 앨범임을 고백합니다. 세월 이 흘러도 그 은혜가 퇴색하지 않고 오히려 새록새록 짙 여가는 음반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따름 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 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겹고 힘들 수도 있는 귀성, 귀경 길을 위해 소마트리오 음반을 준비하시는 건 어머실런 지요,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할 때, 막히는 차안도 훌륭한 예배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박윤정 기자>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함글함글의 기사를 모읍니다.

문의 : 하태원 편집장 T.019.313.3073

제 4기 주님의교회 싱글매칭학교 Matching of God

결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배우자를 찾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주님의교회 젊은이공동체가 시작한 싱글매칭사역이 어느덧 4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4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녀싱글을 찾습니다.

*대상및 인원 : 여자 28세 이상 38세 이하 싱글 (초혼), 남자 30세 이상 40세 이하 싱글 (초혼) / 남녀 각 20명 (남녀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인원조정)

*기간및 장소 : 10월 2일(토) - 23일(토) *매주 토 1시 ~ 8시까지 4주간 (매주 6시 이후 식사애프터 가능 해야함 - 23일은 1박2일) / 주님의교회 (잠실종합운동장맞은편 정신여고내)

*자격및 조건 : 4주간 결석없이 참석하며 시간낼 수 있는 자 /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추천및 참가비 : 출석교회 교역자 / 무료 (단 데이트비용은 자부담)

*신청및 문의 : 4층 교역자실 간사데스크

*마감 : 9.18 (토) 오후 4시까지 (참가자와 후보자 개별통지 합니다)

*담당 : 주님의교회 젊은이공동체 공광승 목사



|오늘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_ 로마서 12 : 2

통 권 제 270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0년 9월 19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5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하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추석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추석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선뜻 ‘집에 못 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보니 명절 때 부모님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해도 그 짜증을 쉽게 풀어버릴 고향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입니다. 고향 가는 길이 멀고 험해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고향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이들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추석을 두고 간단히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덕에 저 북녘 땅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영원한 고향의 소중함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 고향’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비록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반드시 고향에 이른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발걸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수필 신학자인 워커 퍼시(Walker Percy)는 그의 수필집 ‘병 속에 담긴 메시지(Message in the Bottle)’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법을 이야기 합니다. 이 에세이는 어느 섬에 표류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섬에 표류되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해변을 거닐며 메시지가 들어있는 병들을 하나씩 발견해 갑니다. 어느덧 섬 생활에 적응해가는 이 남자는 병속에 담긴 메시지들을 보며 어느 편지가 사실에 대한 기록인지, 또 어느 메시지가 진실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퍼시는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표류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살았던 기억은 모두 잊은 채 세상 한 가운데 표류되어 너무나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사소한 일상들을 스칠 때 ‘하늘의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덕담 속에서도, 교통체증의 힘겨움 속에서도,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고향의 풀내음을 맡으면서도.....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하소서.
당신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땅에서도 하늘을 사시는
한가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목사 박원호

로렘나무



|나와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23:4)

나보다 먼저 가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가신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얼마든지 빨리 가실 수 있었다.
얼마든지 평탄한 길로 가실 수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자리까지 내려오신다.
그리고 한없이 기다려 주신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고집부리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떠날 수가 없어서.

주님!
고집스런 저를
끝까지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엄혜숙 기자〉

추석가정에배운서	2면
제1남선교회/청년 합창 음악회/수련회글	3면
2010 향존직선거결과외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추석가정에배순서

예배로부름	시편 1:1-3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찬송	다같이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1장 3-5절	말은이
말씀나눔	『자녀에게 남겨야 할 신앙유산』	인도자
기도		인도자
찬송	552(구358)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본문말씀 <디모데후서 1장 3-5절>

-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 4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 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통 358)
찬송가, 1908
본동으로

아침 해가 돋을 때
이간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 5:16)
SUNSHINE MINUTES: 7.7.7.7. REF.
찬송가, 1908

552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 선하 여 라
2. 새로 오 가는 광음 올 때 만보 람 있 게 보 내 고
3. 한 번 가 면 안 오 는 여 빠 른 과 음 지 날 때
4. 밤 낮 주 를 위 하 여 몸 과 맘 을 드 리 고

나 도 세 상 지 별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주 의 일 시 간 바 처 서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주 의 사 랑 나 타 내 햇 빛 되 게 하 소 서

후렴
주 여 나 를 도 우 사 세 월 허 송 앓 고 서

어 둔 세 상 지 별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아 멘

아침 해가 돋을 때
새해(송구영신)

자녀에게 남겨야 할 신앙 유산

1. 거짓이 없는 믿음

훌륭했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선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을 감추고 거짓으로 서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2. 끊임없는 기도 생활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한 유산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면 많은 권력과 재산을 물려준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닥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만이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3. 성결한 삶

훌륭한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들도 역시 예수를 믿은 후로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따라 죄악을 멀리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의의의 사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결한 삶이야말로 성도가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할 신앙 유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유산보다 훨씬 강력한 유산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고인을 추모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들 역시 자녀들에게 참다운 신앙 유산을 남겨줄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제1 남선교회 가을 수련회 은혜스럽게 마쳐



지난 14일 제1남선교회 가을 수련회가 실시되었다. 지루한 장마도 멎고 날씨도 쾌청한 가운데 김 수호 장로님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일정이 시작되었다. 회원 35명을 태운 버스는 첫 목적지인 해미읍성에 도착하였다. 해미읍성에 도착하기전 버스에서 장순길 집사의 해박한 지식으로 박해당시의 상황설명을 듣고 현장을 보니,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인 3천여 명이 처형당한 순교성지였다. 철사 줄에 매달아 고문 하였던 3백년 된 회화나무와 신자들의 팔을 묶어 거꾸로 떨어뜨린 잔혹병 그리고 자리개질 처서 신자들을 살해한 돌다

리 등을 볼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르러서 바라보니 바다 한 가운데로 33km의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다. 19년 동안 갯벌과 바다를 땅으로 바꾼 인간 노력의 결실이었다. 해미읍성에서 억눌리고 고통 받은 영혼들의 아픔을 경험하였다면, 이곳에는 무한히 벌어나간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수 있었다. 바지락 죽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송 승엽 회장의 기도를 끝으로 수련회를 마쳤다. <오종세 안수집사>

청년 합창 로비 음악회를 마치고...

글을 쓰기에 앞서, 먼저 로비 음악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합창으로 처음 모이게 되고, 합창으로 처음 로비 음악회를 했기에 미흡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흡함 또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한 우리 청년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몇 개월 전, 현재 장년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지체와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저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라고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해볼까?’ 하는 마음보다는 ‘인젠가는 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저에게 여성찬양대를 지휘할 기회가 생겼는데 연습 과정 중에 문득 그 청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벅차고 신이 나서 빨리 청년들을 모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찬양대와 함께 은혜 안에 찬양하고 나서, 바로 몇몇 청년들에게 연락을 하고 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엔 기획팀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좋은 곡들을 나누고 필요한 인원, 연습시간 등을 정하며 서로가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 출발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합창을 하기에는 턱없이 인원이 모자랐고, 연습시간에 다 같이 모이기 힘들어 소수의 인원이 연습하다보니 금방 지치곤 했습니다. 지휘하는 저도, 일하는 기획팀도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모집이나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기 힘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모자란 우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음



이 지쳐 기도하는 와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모임을 갖게 하신 분은 몇 개월 전 그 청년도 아니고, 지휘하는 저도 아니고, 기획팀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시라는 것ですよ.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초청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 연습하는 주에 바로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동안 10명이나 더 들어와 마침내 필요한 인원이 딱 맞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도 몇 번의 힘듦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꿈꾸는 자 요셉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연습은 쉽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 화음을 이루고 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신기하고 뿌듯할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악보를 집에 가져가서 연습해 오는 지체들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하는 이들의 눈이 빛나고, 얼굴에는 환한 장미꽃이 피어나는 모습들이 그 어떤 노래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소중한 지체들과 이토록 좋은 시간을 보내며 제가 지휘를 공부하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휘자로서 음악과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 보다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청년합창단김명이>

수련회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충주호 리조트 여름수련회에서 안전팀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맑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땀 흘리며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섬기며 2박 3일의 시간이 흘러 폐회 예배가 가까울 무렵, 수련회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끝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인사하려고 대강당 앞에서 차량부 집사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섬긴 분들의 축복을 빌며, 그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사역 때마다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고 응답해주시는 크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나니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련회 직전에 토미 테니와 데이빗 게이프가 쓴 “종의 마음”을 읽었는데,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집사님들을 통해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예비하신 섬세한 주님의 손길에 놀랐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종과 일꾼이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지시대로 겸손히 순종하나 일꾼은 자

기생각과 주관에 따라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하셨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섬기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전팀장: 이상욱 안수집사>